

“가톨릭과 청소년의 심성교육”에 대한 논평

박 상 권

(원광대학교)

발표에서 제시한 심성교육의 목적을 보면 자아 긍정을 토대로한 정체성 확립, 공동체의식의 확립, 하느님 나라를 위한 적극적 참여로 요약된다.

이들 목적 달성을 위한 심성교육을 4단계로 구분하여 ① 인생의 의미를 묻는 삶, ② 규범을 준수하는 삶(계명의 삶), ③ 소유에서 해방되는 존재로서의 삶(인간적인 삶), ④ 절대자를 향한 삶(은총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단계를 좀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로 풀이하자면 인생의 의미를 묻는 삶은 자아 정체성 확립의 단계가 될 것이며, 계명의 삶은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도덕성 확립의 단계가 될 것이며, 인간적인 삶과 은총의 삶은 물신주의를 벗어난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실천의지 확립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각 개인이 가치관의 정립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대타적인 실천을 지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잘 구성된 단계론이라고 본다.

또한 심성교육의 공간으로 가정과 교회를 들고 있는데,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청소년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며 부모는 자녀들의 상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원인을 한국적인 교육 풍토나 청소년의 이상심리에만 돌릴 수는 없다. 자녀들이 외면하는 원인을 찾아가서려는 노력을 통해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을 찾아야 한다. 올바른 신앙지도가 한 방법이 되겠으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의적인 만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앙지도라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감만 남기는 경직된 심성교육의 형식을 낳을

뿐이다.

교회에서의 신앙의례와 주일학교의 교리교육으로 가톨릭적인 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비종교인이 받는 일반적 교육에 플러스 α 로 작용하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종교들이 행하는 청소년 심성교육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신앙심의 자율적 발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신앙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교회가 다양한 공동체적인 작업과 체험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배우며,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는 기회 제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라는 심성교육의 공간을 미사전례와 교리교육으로 대별하여 주로 신자의 도리와 역할 교육에 역점을 둔 점은 보편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리 모임을 활용한 참여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좀더 보편성을 가지는 심성교육의 장이 되리라고 보며, 가톨릭의 잠재력을 익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각 종교별 포교 목적이 아닌 이 땅의 청소년교육을 근본 목적으로 삼아 여러 종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보편적 종교정신의 대중화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청소년기의 예민한 감수성애다가 성자정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신앙체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가톨릭의 경우도 예외없이 신자 학생 중에서 중학생 21.6%, 고등학생 11.7% 정도가 주일학교에 나온다는 현실을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청소년의 종교 외면 현상은 그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종교 자체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극복의 방향은 종교라는 이름과 형식을 벗어버리고 청소년의 가슴 속 빈자리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신앙을 축으로 하는 원론적인 심성교육의 개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2. 교회 내에서 일반 신자를 대상으로 한 신앙지도와 청소년 심성교육 프로그램

을 차별화하여 청소년의 심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논점을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톨릭 신자가 아닌 청소년(비행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과 같은 특수한 경우 제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건과 인식의 정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가톨릭 교립학교(중·고·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타 교단의 교립학교와 교류하는 것이 좋다.